

# 지친 그대 '음악으로 위로'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이 연말까지 매월 1회 보헤미안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왼쪽부터 김거봉, 조재희, 김하린.

대부분 공연장에 유료 반입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입장 시 무료로 '원 프리 드링크'가 제공되는 공연.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 등이 자유로우며 가까운 거리에서 뮤지션을 만나는 소극장 무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대표 김현무·나랩)이 보헤미안소극장과 공동 기획해 지난해 첫선을 보인 '문탁'의 특징이다. 이들은 올해도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다양한 컨셉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금·토(매월 상)) 오후 7시 30분 광주 보헤미안소극장)

나랩 김현무 대표는 "이번 공연은 '관객 입장하신다, 문탁을 낮춰라'라는 주제로 공연장 문탁을 낮추고 관객들이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20대 남성부터 40대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연령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을 만큼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채웠다"고 했다.

먼저 오는 26일에는 나랩 소속 예술가들이 출연하는 '풍류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너영나영', '경풍년'을 비롯해 '대평가' 등 전통음악과 블루스를 결합한 작품들은 전통예술의 스펙트럼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공연은 '계속할 힘'이며 8월 30일 만날 수 있다. 열정 가득했던 청년기를 지나 음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타리스트 정

##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공연 연말까지 매월 보헤미안소극장 전통음악+블루스 작품 등 남녀노소 즐길 레퍼토리 다채

윤준, 해금 연주자 김단비, 플루트 연주자 김범창 세 아티스트가 삶의 원동력인 '음악'으로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정윤준은 KBS1 문화산책 등에 '스타카토 리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려왔다. 협연하는 김범창 연주자는 플루트뿐만 아니라 휘슬, 작곡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를 치며 블루스를 부르는 김거봉을 비롯해 가수 조재희, 아쟁 연주자 김하린의 콜라보 무대 '처음처럼'은 9월 20일 펼쳐진다. 삼인 삼색 예술가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모니로 동서양 및 현대음악의 조화로운 레퍼토리가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재희는 디지털 EP '그란디'와 싱글 '별, 달, 밤'을 발매했으며, 베이스스트 최민석은 마인드비디옌소울의 앨범 'Road to

blues'에 참여하며 기타실력을 뽐낸 바 있다.

10월 26일에 열리는 무대 'Lean on me'도 이목을 끈다. 싱어송라이터 김영훈의 'Love', '도화', 'Lean on me' 등으로 무대를 채워 나간다. 김영훈은 어쿠스틱 밴드 '바닥 프로젝트'에서 보컬과 우쿨렐레를 맡고 있으며,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100회 넘게 관객들을 만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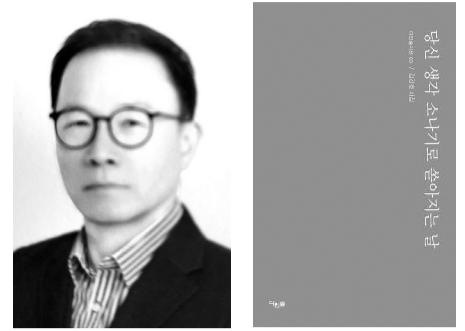
이 밖에도 11월 29일 출연하는 어쿠스틱 듀오 '느린 날'은 나랩과 함께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따뜻한 감성과 희망을 선사한다. 느린날은 싱어송라이터 송은재와 베이스 기타, 하모니카 연주자 박은호가 함께 만든 어쿠스틱 그룹사운드다. 자신만의 음색과 긍정적인 메시지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12월 28일 '풍류의 스펙트럼:그림자'는 나랩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두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김현무 대표는 "지난해에는 '나랩'의 자체 공연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다양한 장르에 천착해 온 타 뮤지션들과의 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장르 간, 예술가 간 '문탁'을 넘는 이번 무대가 관객들 삶에 작은 즐거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관람료 2만원(학생 1만원), 네이버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사무치게 그리운 이름 '어머니'

김강호 시인 네 번째 시조집 '당신 생각 소나기로 쏟아지는 날'



광주시시인협회장을 역임한 김강호(사진) 시인이 네 번째 시조집 '당신 생각 소나기로 쏟아지는 날' (다인숲)을 펴냈다.

정제된 언어와 깊은 서정, 운율의 이미지로 구현한 작품들은 읽는 맛을 선사한다.

시인에 따르면 이번 작품집은 일부는 어머니에 대한 시, 일부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소재 또한 꽃, 개복숭아, 문고리, 집, 빗자루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것들이다.

김 시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 등을 정리하다 보니 사랑, 아픔, 눈물, 회한 등을 느꼈다"며 "'복숭아 문고리'나 '어머니의 눈물'은 그런 마음을 시에 투영한 작품"이라고 전했다.

지난 99년 동아일보로 등단 이후 그는 창작활동을 하며 광주전남시시인협회 회장, 한국시시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가곡작사가 협회 창립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시와 노래를 접목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제 시에 작곡가들이 붙인 곡이 70여 편이 된다"며 "세종문화회관과 호암아트홀에서 서약가들이 발표를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당신 생각 지평선만큼 끝 모르게 깊어서/ 수시로 돌돌 말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남몰래 숨을 죽이며 보석처럼 꺼내 봤어// (중략)// 당신 생각 소나기로 쏟아지는 날이면/ 슬픔 깊은 이별 강 목을 늘린 새가 되어/ 강물이 붉어지도록 피 토하며 울었다"

표제시 '당신 생각 소나기로 쏟아지는 날'이면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작품이다.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니 못헤드렸던 것만 가슴에 남았다. 안타까움과 사무친 그리움은 "목을 늘린 새가 되어 강물이 붉어지도록 피 토하며 울었다"로 귀결된다.

그는 젊은 시절 직장 생활, 자영업 등 다양한 밥벌이를 하다 보니 시를 많이 못 썼다. 뒤늦게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문우들과 함께 시 공부를 했다.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시의 자양분이 됐다.

그는 "남은 인생도 시를 계속 쓰고 싶다"며 "후배도 양성하고 공모전에도 응모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창수 시인은 "김강호 시에서 서정의 직조 능력을 보게 된 것은, 여러 매체에 발표된 그의 작품에 어떤 필이 꽃피고서이다"며 "그 정점(頂點)"이, 감정의 혈에 놓은 침의 효험과 같은 떨림과 더불어 촉감의 끼집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몽골 예비 유학생들, 해설사와 동구 한바퀴



최근 성료한 '동구친구와 함께하는 조선대 예비유학생 썸머 스쿨 동구 명소 관광' 모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 '동구 친구'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전일당비245 등 명소 관광 가이드

지역대학 유학을 준비하는 몽골인 예비 유학생들이 최근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관광 헬퍼 프로그램인 '동구 친구'를 통해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봤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향후 지역관광 활성화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지난 12일 '동구친구' 프로그램 일환으로 조선대 CSU 썸머 스쿨에 참여 중인 몽골인 예비 유학생 40명과 '광주 동구 명소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재단이 광주 동구만의 맞춤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한 '동구친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70여회 지역 관광행사와 축제에서 관광 가이드 역할을 맡아 왔다.

이날 관광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내부 공간, 수목 등을 볼 수 있는 'ACC 한바퀴'로 시작했다. 이어 5·18의 헬기사격 탄흔 등이 있는 전일빌딩245를 방문해 역사현장 체험, 시민문화체험 등을 진행했다.

재단 문창현 대표는 "지역 주민 주도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인 '동구 친구'를 통해 배출된 해설사들은 지역을 관람하는 외부인, 관광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동구 친구'의 역할을 확대해 동구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 지역 예술인 소멸·가사노동·중독 탐구...

## 문예위 '청년 인문실험' 광주·전남 5개 프로그램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2024 청년 인문실험'에 광주·전남 5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청년인문실험'은 인문소양을 토대로 주변 문제를 탐구하고 실험하는 리빙랩(Living Lab)으로, 올해는 인문 실험 100개가 선정됐다. 실험주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진로, 주거,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 관련 18건, '지역기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및 인구소멸 해결' 26건, '철학, 공연, 역사, 무용 등 기초분야 예술실험' 26건 등이다. 선발된 팀은 활동비 200만원과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선정된 지역 프로그램은 모두 5개. 광주 극단 '밝은밤'의 '극장의 무대와 객석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가?', 실험팀 '테셀레이션'의 '지역 청년 예술인들은 왜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가야만 하는가?' 등이다.

광주 극단 '밝은밤'은 '극장의 무대와 객석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객참여형 연극의 양상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청년문제를 실험하는 팀 '중독 디톡스'는 '우리는 각자의 중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일상에 만연한 '중독'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실험팀 '테셀레이션'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은 왜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가야만 하는가?'를 주제로 지역 예술인 소멸문제를 다룬다.

이 밖에 '커머너즈'의 '청산도 구들장논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예술적으로 조명하는 방법은?', '발발여자들의' '가사노동, 정말 공평하게 분담 했나요?' 등의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문예위 예술지원본부 문화지원팀 진효룡 대리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이번 '리빙랩'은 전년 대비 신청자 수가 46.9% 증가, 282팀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인문, 워라벨 등 다양한 주제로 탐구가 진행돼 주변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